

당신은 타인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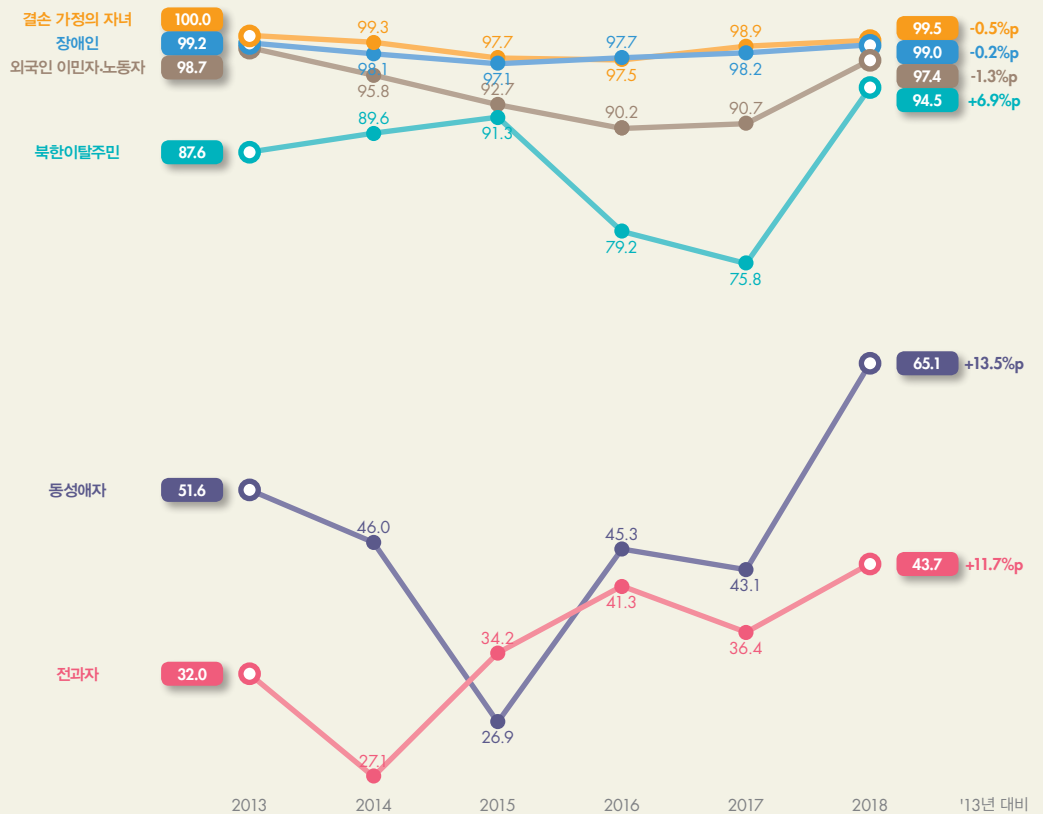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 조금 다른 사회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고 얼마나 인정할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의 수준 및 원인 파악, 문제 진단을 위해 매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포용 정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대전시민들의 포용 정도는 어떤지 주목해보자.

대전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비율, 2013년 대비 13.5%p 상승

대전의 각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포용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다. '동성애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51.6%에서 2015년 26.9%로 하락했으나, 이후 꾸준히 높아져 2018년 65.1%로 2013년 대비(+13.5%p)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서 '전과자'에 대한 포용 비율은 2018년 43.7%로 2013년(32.0%)과 비교해 11.7%p 증가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 인식(2013년 87.6%, 2018년 94.5%)도 2013년 대비 +6.9%p 상승했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2013년 98.7%, 2018년 97.4%, 2013년 대비 -1.3%p), '결혼 가정의 자녀'(2013년 100.0%, 2018년 99.5%, 2013년 대비 -0.5%p), '장애인'(2013년 99.2%, 2018년 99.0%, 2013년 대비 -0.2%p)에 대한 포용 비율은 2013년보다 2018년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대전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 변화 추이

단위 : %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박재욱
편집인 주혜잔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2019. 7. 31.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는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묻는 문항으로 이에 대한 응답항목 중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제외한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의 응답을 합해 "받아들일 수 있다"로 보고 '포용 비율'로 산출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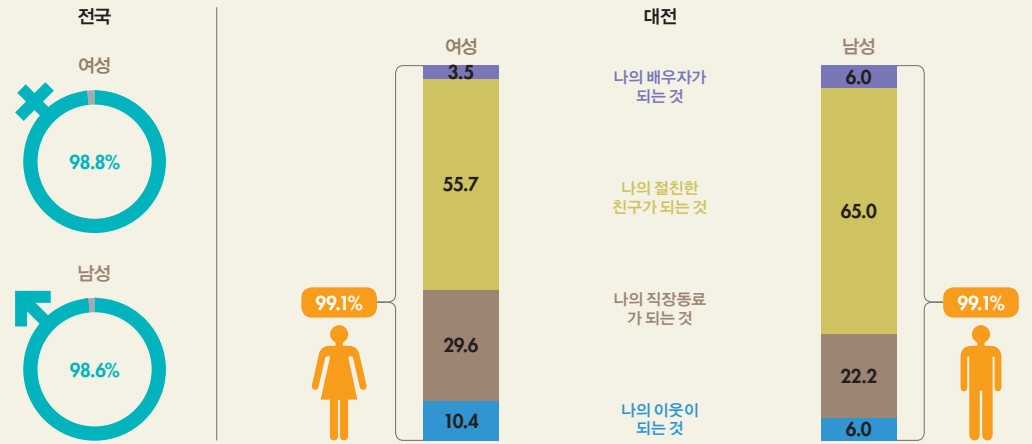
대전시민 소수자
받아들이려는 경향,
전국보다 강해

대전시 및 전국의 ‘장애인’, ‘결혼 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 주민’ 등 6개 집단 구성원에 대한 성별 포용 정도를 살펴봤다.

‘장애인’ 포용 정도(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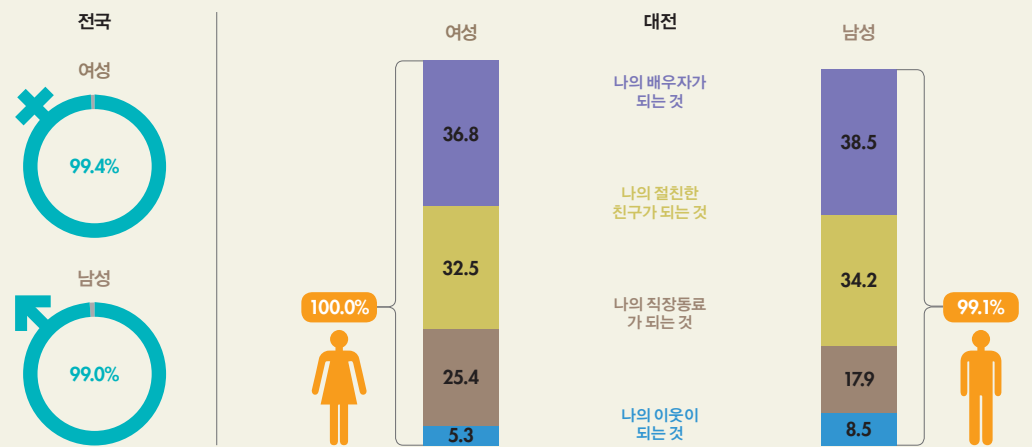
장애인 포용에 대한 대전의 여성과 남성 비율은 각각 99.1%로 전국과 비교해 다소 높았다. 여성(55.7%)과 남성(65.0%) 모두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 가정의 자녀’ 포용 정도(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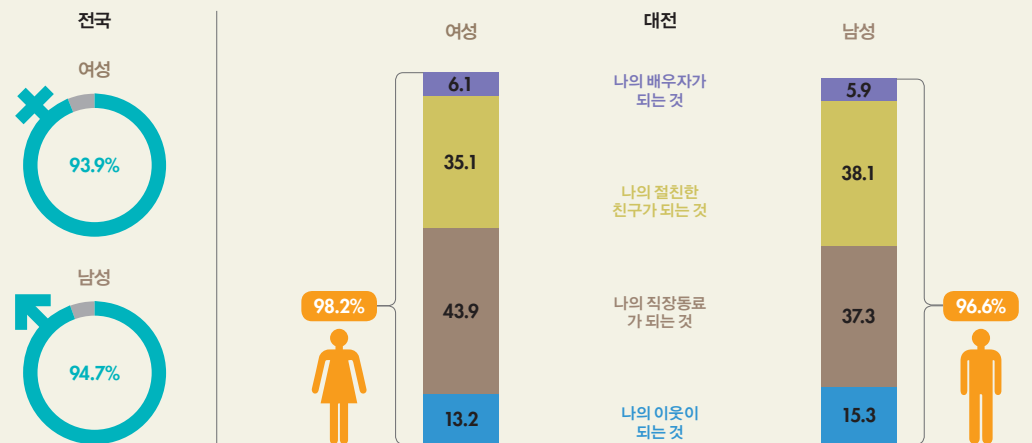
결혼 가정 자녀에 대해 대전 여성 응답자 100%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99.1%)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녀 모두 ‘배우자’(여성 36.8%, 남성 38.5%)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정도(2018)

단위 : %

대전 여성 98.2%가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와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남성보다 1.6%p, 전국 여성보다 4.3%p 높았다. 여성은 ‘직장동료’(43.9%)를, 남성은 ‘절친한 친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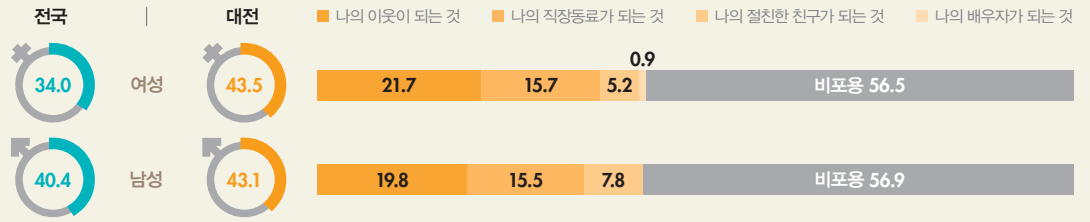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는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묻는 문항으로 이에 대한 응답항목 중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제외한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의 응답을 합해 “받아들일 수 있다”로 보고 ‘포용 비율’로 산출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년도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전과자’ 포용 정도(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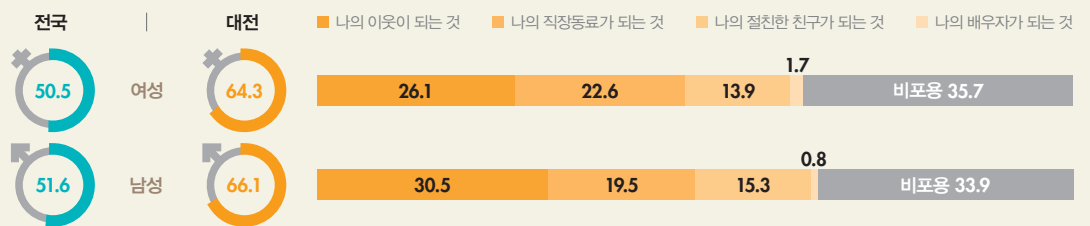
전과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대전 여성 43.5%, 남성 43.1%로 6개 집단 구성원 중 가장 낮은 포용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여성은 0.9%, 남성은 단 1명도 없었다.



‘동성애자’ 포용 정도(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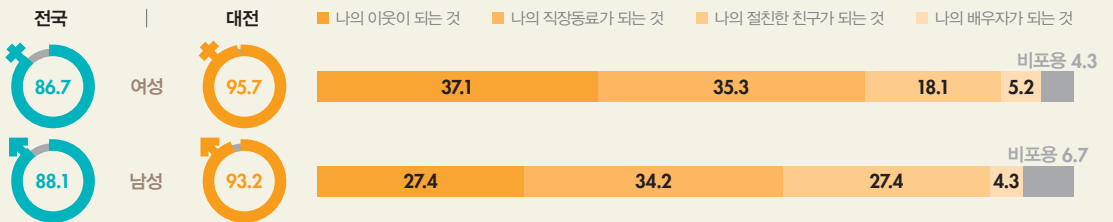
동성애자의 경우, 대전 여성의 64.3%, 남성 66.1%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포용도 (+1.8%p)가 높게 나타났다. 관계별 응답 비율은 남녀 모두 ‘이웃’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포용 정도(2018)

단위 : %

대전 여성의 95.7%, 남성 93.2%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에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전국과 비교해 각각 9.0%p, 5.1%p 높은 수치였다. 여성은 ‘이웃’(37.1%)을, 남성은 ‘직장동료’(34.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 너 _ 나 _ 에 _ 게 _ 모 _ 욱 _ 감 _ 을 _ 찾 _ 아 # 루리웹 # 빅데이터 # 젠더콜로키움

2019년 제2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협오와 갈등 속의 젠더



김학준_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실 주무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제2회(통합17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젠더 갈등과 여성혐오의 원인을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로 열렸다.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실 김학준 주무관이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서의 여성혐오”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서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의 진행으로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이주현 부센터장,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최인이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김학준은 ‘루리웹’ 게시물들을 분석하여 여성혐오표현의 실태와 특징에 대해 설명했으며, 여성혐오 행위와 태도의 기저에 남성들이 최근 경험한 ‘모욕감’이 있음에 주목했다.

제3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4회)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발제 『함께 그리고 홀로

-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연대의 변화

+ 김소라_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초빙교수

일시 2019년 8월 27일(화) 10시 3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